

## 현대오토에버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2일 "현대오토에버는 전 제품·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통해 "현대오토에버 합병 이후 신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SW검증·개발환경 사업은 올해 완성돼 당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검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SW통합환경을 본격적으로 확산 전개해 그룹의 SW 품질 제고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빌진은 신규 제품과 솔루션을 양산해 성장을 위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내비게이션 사업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 관점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라며 "전 사업장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 복구 수준과 역량을 향상해 그룹의 기본적인 IT 안정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자산인 임직원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하겠다"면서 "AI·차량SW·임베디드 등 중요 신기술에 대한 사내·외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회사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해선 타운홀 미팅, 현안토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